

요나의 회개

신학박사 조 덕운

[요나 2:1-9]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2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3 주께서 나를 깊은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5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7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8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9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요나는 열왕기하 14 장에 소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 세 왕 시절에 봉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앗시리아 왕국 (오늘날 이라크)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싫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가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물 속으로 던지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위의 구절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을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의 사역의 대상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나는 잠정적 적국인 앗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이며 매우 포악한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백성들도 그들의 상태를 관심 가지고 계셨으며, 그들을 회개의 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가지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기독교가 주된 종교가 아닌 나라들에서 선교 활동에 헌신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실천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인류의 축복의 채널에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알려 주셨고, 구약 내내 이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소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큰 깨달음이 오면 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중에 복음 전도에 열심하면서 큰 핍박과 환란을 받을 것입니다 [계7:3-8].

이러한 이방인 전도의 소명을 망각한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도중에 승선한 배에서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 배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구원을 외쳐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요나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잃어 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렵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져 혼자가 됩니다. 선원들이 그를 물로 던졌지만, 요나는 3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깊음으로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 남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자 주시는 경험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깊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생명이 썩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것을 알고 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6절]. 거의 기진할 지경에서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7절]. 성전 봉헌 행사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던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을 두고 모든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상 8:27-30]. 그러나 우리 신약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성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2021 년 동안에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장애 가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히 간증하지 못한 연약한 신앙 생활을 하였다면, 요나처럼 처절한 심령으로, 죽음 직전에서 울부짖는 심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2 년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하면서 서원한 것을 갚는” 순종의 기쁨, 감사와 찬송의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